DOI: https://doi.org/10.22962/tnirvw.2024.14.2.002

T&I REVIEW
December 2024. Vol. 14. No. 2.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번역 이론을 통한 전략적 능력 향상 가능성 탐구*

안수경 · 남원준*****

Sukyoung An and Won Jun Nam (2024). A preliminary study on improving the strategic competence of undergraduate translation students: Exploring the potential of translation theory. *How can undergraduate translation students develop and enhance their strategic competence? This is the baseline of inquiry at the core of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a more strategic approach, students should first develop their metacognition. This article firstl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mpetence, the ways in which it can be enhanced, and the potential of translation theory to assist in improving practice. This article then examines the mental considerations of entry-level translation students and explores whether there is a potential for translation theory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horizons in considering different approaches. It also explores what students think about theory in general and what theoretical components they consider important or necessa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although students made efforts to be more strategic, they nonetheless failed to consider the "big picture" overall. Students also attempted to use various meta-languages, but often misused them. The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each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Undergraduate translation education, translation theory, strategic competence, metacognition, importance and necessity analysis
주제어: 학부 번역 교육, 번역 이론, 전략적 능력, 메타인지, 중요도·필요도 분석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학부 번역전공생들이 전략적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전략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공생들은 메타인지를 향상해야 할 텐데 이때 번역 이론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최근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해 인간 번역가의 능력을 보강(augment)한다는 전제 하에(O'Brien 2024: 391) 통번역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 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Pym and Torres-Simón 2021).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통번역 교육에서 그만큼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인간 통번역가에게 요구되던 능력들이 덜 중요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Antonova A.M. 2023: 25). AI 시대를 맞아 통번역 현장에서도 AI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보기도 하면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Ning and Hongtao 2023). 이런 시대에 번역가에게는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 AI 시대에서의 전문 번역가 능력을 고찰한 프리에토 라모스(Prieto Ramos 2024: 167)에 따르면, 24개 기관에서 활동 중인 474명의 전문 번역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번역가의 핵심능력으로 언어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능력(language or communicative and textual competence), 전략 방법론적 능력(strategic or methodological competence), 주제 문화 능력(thematic and cultural competence)을 꼽았다고 한다. AI 등 테크놀로지가 크게 화두로 떠올랐으니 현업의 전문 번역가들은 도구적 능력(instrumental competence)을 핵심으로 꼽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였다.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하는 최근 통번역 현장에서도 인간 통번역가에게 기존에 강조되던 능력들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았다(Lafeber 2022). 통번역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강조하던 기초 통번역 능력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공생들은 통번역 관련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여 내면화(internalize)함으로써 테크놀로지의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이는 번역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강경이 2011; 남원준 2019).

본 연구는 이렇게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서도 전략적 능력[1]에 주목한

1) 팍테(PACTE) 연구 그룹은 전략적 능력을 전략적 하위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으로 제시하지만, 괴페리히(Göpferich 2009/2013)가 수행한 TransComp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전략적 능력

다. 다른 하위능력을 통제하고,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를 해결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다(PACTE 2014: 88). 이를 위해, 우선 번역 전공 입문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보고 더 심도 있고 다면적인 접근을 위해 번역 이론을 적용할 여지에 대해 논한다. 이어 학생들은 번역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학습한 번역 이론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번역 전공 입문생들과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다룬다. 이를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왜 전략적 능력인가?

프리에토 라모스(2024)가 설문한 474명의 전문 번역가들은 기계번역 텍스트를 검토한 후 에디팅하기도 하고, 이를 토대로 영감을 받아 인간번역을 수행하거나 창의력을 더 발휘하여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수행해야하므로 원문을 이해하고 번역문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 커뮤니케이션 및 텍스트 작성 능력이 통번역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해당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지식,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면서도 번역브리프를 분석하고, 번역문제를 해결하며,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품질향상을 위한 에디팅도 수행할 줄 아는 능력, 즉, 전략 및 방법론적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략적 능력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번역능력 연구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1990년대에 수행되었다(Hurtado Albir (ed.) 2017: 18). 그런데 서로 파편적

(strategic competence)으로 제시한다. 전략적 능력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하며 다른 하위능력을 통제한다고 설명한다. TransComp 연구는 종단연구이며, 학생 12명의 번역능력이 3년간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추적한 후 이를 10명의 전문 번역가와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능력으로 통일해 지칭하고자 한다.

으로 진행되어 소통이 부족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97년에 출범한 것이 팍테(PACTE) 연구 그룹이었다(Hurtado Albir (ed.) 2017: 24). 팍테 그룹이 제안한 번역능력 모델은 모두 6가지의 하위능력(sub-competence)으로 구성된다(PACTE 2003: 60). 그중 전략적 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은 번역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이며 번역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번역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본질적 능력이며, 이를 토대로 다른 하위능력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s)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procedures)를 선택해 적용한다(PACTE 2009: 208-209).

팍테 그룹은 번역능력을 구성하는 6가지 하위능력 중에서도 전략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번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다(PACTE 2009: 209). 이는 TransComp도 마찬가지여서 전략적 능력을 자신들의 번역능력 모델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한다(Göpferich and Jääskeläinen 2009: 184).

팍테 그룹은 번역 수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연구하기 위해 35명의 전문 번역가와 24명의 외국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모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번역문, 번역과정 관찰일지, 스크린리코딩을 분석했다. 원문에 다양한 번역문제를 미리 설정해 두었는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번역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했다(즉, acceptability를 평가). 번역 양방향 모두에서 전문 번역가들의 번역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번역문제를 만났을 때 취하는 번역과정도 남달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번역과정을 살펴보니 번역문제에 대해 때로는 초안을 제시한 후 나중에 교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외부 리소스를 찾아 검색하고 참고하기도 했다고 한다(PACTE 2009: 222-223). 다시 말해, 전문 번역가들은 번역문제에 따라 그에 맞는 번역방법을 찾아 일련의 행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번역문제 해결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전략적 능력이다.

2.2. 전략적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

괴페리히는 번역가는 자신의 전략적 능력을 통해 어떤 하위능력을 동원할지를

통제한다고 설명한다. 전략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 능력(meta-cognitive competence)이며, 이를 통해 번역가는 개별 하위 능력들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와 위계를 정하고, 수행 중인 번역의 거시적인 전략(macro-strategy)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전략을 토대로 번역과정에서 최대한 모든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기본 전제는 전략적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려면 번역가의 수행기억(working memory) 속에 인지자원(cognitive resources)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öpferich 2013: 66). 그래야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변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전략적 능력은 메타인지를 토대로 한다[2]. 이를 달리 말하면, 전략적 능력을 향상하려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John Flavell)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상위인지라고도 불리며, 인지에 대한 인지로 이해할 수 있다(Flavell 1979). 예컨대,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읽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고를 거쳤는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다(Block 2004; 이흠 외 2024에서 재인용).

번역 교육에서의 메타인지 관련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번역 수행 중에 문제 인지(problem-awareness)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을 어떻게 하는지에 주목해왔다(Mellinger 2019: 607). 학생들이 원문을 보고 기계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역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등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가 많았다. 예컨대, 리(Li)는 학부생 21명이 다양한 번역기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재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2학년 수업에서 조별 토론, 발표, 학생들의 번역일지 작성 등의 수업 활동과 스마트폰 채팅앱에서의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번역기법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어떤 때에 어떤 번역기법을 적용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는지 등에 대해 점차

2) 이에 따라 TransComp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에 참가한 학생과 전문 번역가의 전략적 능력을 측정할 때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당해 번역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참가자가 번역하면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판단하는지 해당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평가했다. 참가자가 문제라고 판단한 부분의 수가 적고 적절하게 번역한 부분의 수가 많을수록 인지자원의 여유가 생겨 인지자원을 전체 전략에 집중하거나 창의적인 부분에 더 할애할 수 있다고 보았다(Göpferich 2013: 66-67). 이처럼 전략적 능력은 메타인지적 능력이다.

깨닫고 '인지(conscious)'하게 되었다고 한다(Li 2017: 246).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번역능력을 분석한 연구 중에는 도구적 (하위)능력(instrumental sub-competence)에 주목하기도 했다. 창(Chang)은 영국의 번역 전공 대학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발화법, 스크린리코딩, 사후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를 진행해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참여한 학생들이 번역문제를 잘못 파악했을 때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학생들이 제공한 메타인지 성찰일지(metacognitive reflection)에 따르면 번역을 하면서 점차 웹 검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리소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번역문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번역하면서 사고하는 바를 발화하고 스크린을 녹화해 관찰하며 그 과정에 대해 사후에 논의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번역과정에 대해 돌이켜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게 도왔다고 보고한다(Chang 2018: 2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하위능력이 아닌, 번역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 접근을 취하면서 메타인지에 주목한 연구로는 예컨대, 페르난데스와 사발베아스코아(Fernández and Zabalbeascoa 2012)가 있다. 독일어-스페인어 일반 번역 교과목에서 번역 전공 1학년생들의 전략적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메타인지 질문지 조사(metacognitive questionnaires)를 활용한 사례를 보고한다. 학생들은 번역을 수행한 후 메타인지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어떤 것이 번역문제였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제시한 번역문이 왜 적절했는지를 설명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지목한 번역문제로는 문체 관습, 해당 장르에 맞는 표현들, 어휘, 문화소, 저자의 문체, 통사, 원문 텍스트 이해, 번역문 독자의 기대 충족하기, 직역을 피해야 하는 부분 등이 있었다. 자신의 번역을 스스로 평가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번역문제로 지목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번역을 수행했다고 보고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번역일지를 분석한 질적 연구가 많았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적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부분 단기간에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기간을 늘려 종단연구의 형태로 연구하기도 했다. 예컨대, 멜링거(Mellinger 2019)는 번역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나아

가 해결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문제해결 행위가 메타인지 행위라고 간주한다. 이를 토대로 일반 주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다른 연구와는 달리 전문주제 영역인 의료 번역에서의 메타인지를 분석한다. 학생들이 번역과 동시에 자기평가 성찰일지(reflective self-assessment)를 작성하면서 당해 번역 과업에서 무엇이 이슈이고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서면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번역문제를 적절히 인지했는지,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번역했는지를 알아보았다. 8주 간격으로 진행한 두 차례의 자기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처음보다 번역문제를 잘 인지하였고 어휘적 수준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변 맥락을 고려하면서 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학생들의 메타인지 진척도를 추적하려는 종단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다만 8주보다 기간을 늘려 더 긴 기간의 종단연구도 좋고, 더 크게 보아 한 학과 전공생 전체의 학년별 메타인지 진척도를 추적해보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요컨대, 번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등 자신의 번역과정에 관해 통찰하는 것은 번역전공생이 꼭 함양해야 할 능력이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번역 입문생과 전문 번역가의 결정적 차이라고까지 지목되기도 한다(Göpferich 2013: 67). 그리고 이를 번역능력과 연계해보면,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전략적 능력이다(Göpferich 2009: 22).

2.3. 번역 이론이 도움이 될까?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토대로 전략적 능력을 발휘할 때, 번역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번역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번역 교육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Agost and Ordóñez López 2015).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한 것은 오르도네스와 아고스트(Ordóñez and Agost)이었다. 2012~2015년에 학부와 일부 대학원 통번역 전공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번역과 번역 이론, 번역 이론의 유용성, 번역 이론 교과목의 구성, 내용, 수업 활동, 수업 중 학생들의 역할, 교수자의 프로필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알아보았다. 기본 취지는 실무 중심의 번역 교육에서 부차적인 위상에 머물고 있는 번역 이론의 교육을 개선하고 번역 이론과 실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Ordóñez and Agost 2015: 324). 오르도네스와 아고스트에 따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학부 통번역전공생들은 번역 이론 교과목에 대

해 매우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추가 개설되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예컨대, 이론 교과목을 거부하는 경우는 2.6%뿐이었고, 48.8%는 학부 과정에서 이론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43.6%는 핵심 교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Ordóñez and Agost 2015: 330-331). 이들은 이론 교과목을 통해 번역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으며(응답자 중 38.3%),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도 크게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25.5%). 이렇게 학생들은 이론 교과목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오르도네스와 아고스트(2021)는 이어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2015~2018년에 199명의 이론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70%가 수강 전과 비교해 번역과 번역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론 교과목의 강점으로 번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번역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것과 번역 실무를 체계화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는 점,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능력을 키웠다는 것 등을 꼽았다(Ordóñez and Agost 2021: 171).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개선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이론 설명 교재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업이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역할이 수동적으로 머물 때는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론이 매우 많은데 실무에서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론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어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Ordóñez and Agost 2021: 170-171). 다시 말해, 학생들은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 적용할 이론을 배우고 싶어 한다(Ordóñez and Agost 2021: 173).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당장 번역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만을 원한다는 것은 단기 목표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번역의 이론적 토대를 교육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장기 목표와 대비된다(Ordóñez and Agost 2021: 174). 그러니 더 학술적이고, 분량이 많은 교재일수록 그만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에 학생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Ordóñez and Agost 2021: 173-174).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인지행위를 잘 통제하려면 번역에 대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Mellinger 2019: 607).

요컨대,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론 교과목에 우호적이고 자신의 번역 수행에 적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론 교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몇 학기 또는 몇 년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이론을 원용해 판단하고 번역을 수행하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보토넨과 쿠자마키(Vottonen and Kujamäki 2021)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번역 선택을 설명할 때 번역 이론을 얼마나 원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한 후 그 과정을 녹화한 스크린리코딩 화면을 보면서 번역 수행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분석한 번역문제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직감'에 의존했다고 답했고, 번역 이론에 기반해 메타언어를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들인데도 자신의 이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번역 이론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번역 교육(정혜연 2008; 남원준 2010)에서 이론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론 교육의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이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어떤 이론이 도움이 될지 탐구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이은숙과 이은정 2010; 이상원 2013; 신지선 2020).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이론 교육이 번역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론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력은 전략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남원준(2010: 32)은 '영어 번역 이론 및 실제' 교과를 운영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이론 교육을 토대로 전공생들이 언어 전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번역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직역/의역, 자연스럽다/어색하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이상의 평가는 번역학 내 여러 메타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여러 번역전략과 번역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전략적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교과목에서의 단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에 그쳐 규모를 늘려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원종화(2013: 308-309)는 통번역대학원의 번역입문 수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행 연구로 번역 이론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번역 이론을 적용한 실무 수업 진행시 긍정적인 효과로 체계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해졌음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학생들은 이론을 통해 이전에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이 번역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번역 이론이 학생들의 번역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번역방법에 있어 하향식 접

근이 가능해지고, 번역학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제물 평가 또는 피드백 등의 의사소통이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꼽았는데, 메타언어의 숙지가 교육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이유진(2022: 49)은 중국어 통역 교육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역이론 교육의 효과에 대해 109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론, 통역이론 교육의 효과 등을 설문하여 통역이론 교육이 통역에 대한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이는 향후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유진 2023)으로 잘 정리되었다.

최은경 외(2023: 175-176)는 학부 번역 교육에서 전공생들의 메타언어 활용과 명시적 지식 함양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때 명시적 지식이란 번역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전략적 능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명시적 지식 척도를 살펴보기 위해 원문 텍스트와 기계번역 결과물을 제시하였고, 기계번역 결과물에서 번역문제를 판단하는 과제를 부여하였고, 일부 예외 결과가 있긴 하였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메타언어 활용 빈도와 명시적 지식수준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메타언어 교육이 학생들의 명시적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연구에서는 번역 수업에서 이론을 토대로 번역에 대해 설명하거나 논의를 하는 행위를 메타언어 활동이라고 간주하였다.

종합해 보면,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번역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번역 이론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했다. 모두 의미가 큰 연구들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적었고(Fernández and Zabalbeascoa 2012), 종단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기간을 더 늘리거나(Mellinger 2019), 한 학과 전공생 전체의 학년별 진척도를 추적하는 반종단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오르도네스와 아고스트의 두 차례 연구(2015, 2021)에서는 학과생 전체 또는 이론 교과목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했으나, 설문조사에 이어 실제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여 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경주할 수 있다. 요컨대,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심층 탐구하기 위해서는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과 규모의 반종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번역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번역을 수행할 때 어떻게 사고하는

지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번역 이론의 역할은 어떠한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을 향상하려면 번역 이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소통하며 관찰했던 내용 중에서 번역전공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엿볼 수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번역을 수행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 과정에서 번역 이론을 떠올리는지, 번역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먼저 수업 운영 방식을 설명하자면 이번 한 학기 동안 1~3단락 내외의 번역과제를 총 4회 부여했다. 본 수업의 번역과제는 학생 번역의 품질평가보다는 수업에서 학습한 번역 이론을 각자 자신의 번역과정에 잘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언어능력 또는 주제 배경지식 능력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텍스트 난이도를 쉽게 하였고, 영한번역 과제를 완료한 후 해당 텍스트에서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유롭게 2~3개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번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번역문제를 발견하였는지 코멘트를 작성하게 하였다. 번역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번역 이론 학습 내용을 잘 적용하는지, 함께 학습한 이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번역 이론에 가졌던 이미지와 이론 학습 후에 학생들은 번역 이론 학습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짚어보기 위해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수업은 2024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이하, TTP)> 수업으로, 학부 번역전공생 46명과 온라인, 오프라인, 서면과 수업 중 면대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교과목은 통번역 전공 2학년 교과목으로, 학기 중 수강생들은 주차별 진도에 맞추어 교재를 읽고 각자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이클래스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였다. 주로 교재 내용 중에서 흥미로웠던 내용이나 자신의 번역 또는 외국어 학습 경험을 공유하였고, 교재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하여 각자 떠오르는 예시도 함께 적어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댓글 내용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느 부분에 흥미를 갖고, 또 이론 수업의 내용을 다른 실무 수업과 연계해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수업 활동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 및 연구 데이터 수집 진행 과정

학기 초	학기 중 수업	학기 중 과제	학기 말
1) 사전 이미지 조사	2) 교재 읽고 댓글 3) 온·오프 토론	4) 영한번역 과제 5) 번역문제 코멘트	6) 사후 이미지 조사 7) 중요도·필요도 설문

본 연구에서는 수업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번역과제와 번역문제 내용을 취합하여 학생들이 번역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론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학부생이 특히 어려워하는 번역문제가 있는지, 그중에서 학생들 스스로 잘 해결해나가는 번역문제와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한 번역문제로 범주화가 가능한지 등 학생들이 번역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관찰하여 향후 교육과정에서 개선해나갈 부분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재는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이상빈 2023)을 사용하였다. 해당 교재에서 저자는 자신의 번역 실무와 교수 경험을 토대로 번역학 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룬다. 번역 이론 관련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소개하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론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H 대학에서는 번역 이론 첫 학기 교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교재는 총 43장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번역의 정의와 개념의 확장에서 시작해서 스코포스,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소개한다. 직역, 의역, 명시화 등을 포함한 번역전략과 번역방법, 문화특정항목, 말장난과 같이 번역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번역문제, 수 접미사와 인칭대명사, 문장부호 등과 같이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번역문제, 이에 더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번역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교정교열의 중요성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교재의 장점이긴 하였으나, 학기 중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소 혼란스러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교재의 전체 43장을 9개의 상위 주제로 분류하였다[3]. 본 논문 4장의 중요도/필요도 조사에서도 상위 분류된 항목을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지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즉, 학생들이 번역문제를 잘 파악하는지를 보겠다. 이어 학생들의 번역일지를 들여다보고 학생들이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사고하는지, 전략적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찾아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번역 이론에 대해 학기 초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수강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보고, 번역 이론이 학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을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4.1. 번역과제 분석

학생들은 번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어렵게 느끼고, 무엇이 번역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까? 먼저 학생들의 번역과제 4개에서 찾아낸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는 총 450여 개이다. 이를 이번 학기 수업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항목화하면 그림 1과 같다.

3) 9개의 상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번역전략, 번역방법, 번역의 어려움, 언어 차이에 따른 번역문제, 번역학 이론, 텍스트 유형과 특징, 도구 활용, 교정교열, 번역의 정의 등이다. 이때 '번역학 이론'은 학기 중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다른 항목과 달리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 내용으로, 해당 교재에서는 간단히 이런 이론이 있다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을 마친다. 보통 학부보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이론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교수자가 강의 내에서 추가 설명을 덧붙였던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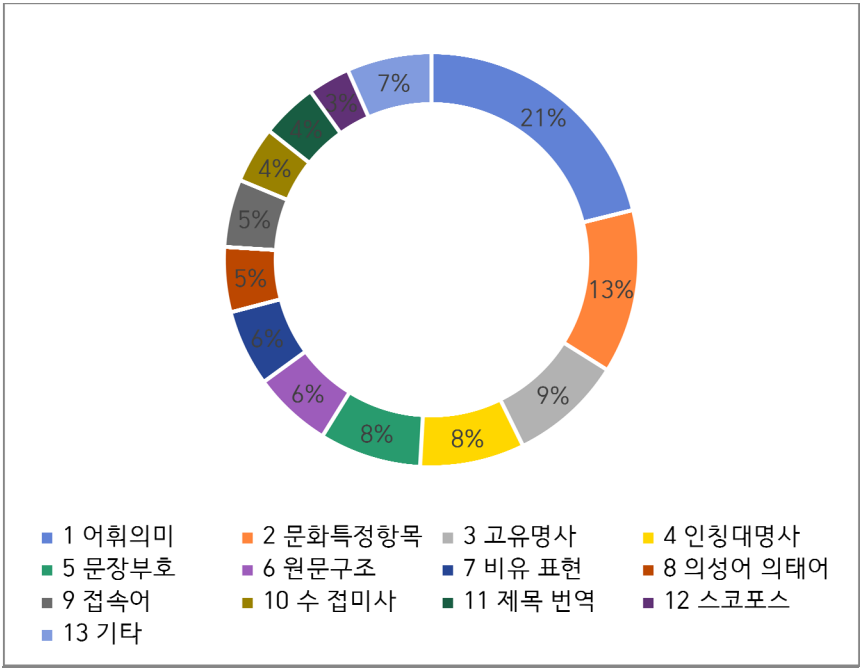

그림 1. 학생들이 인식한 번역문제

학생들의 번역과제 수행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번역문제는 원문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었다. 어휘의미 번역문제는 영어 어휘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감 차이를 고민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아우른다. 어휘의미가 가장 빈번한 번역문제로 나타난 이유를 짚어보려면 먼저 학부생이라는 교육 대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던 번역문제는 문화특정항목과 고유명사다.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유형은 번역문제를 찾아내는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번역전략이나 번역방법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재에서 제시한 여러 번역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선택해줄 수 없는지 교수자에게 자주 의견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졌던 번역문제는 한국어와 관련된 번역문제로 인칭대명사와 문장부호, 수 접미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어 관련 번역문제의 경우, 다른

전공 수업을 통해 이미 번역문제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 해당 부분을 전혀 번역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론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았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총 4회의 번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찾아낸 번역문제 유형의 추이를 추적하여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표를 보면서 살펴보자[4].

표 2. 번역과제별 번역문제 유형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평균
어휘의미	34%	15%	12%	22%	21%
문화특정항목	19%	16%	16%	-	17%
비유 표현	-	18%	-	4%	11%
문장부호	-	6%	1%	23%	10%
고유명사	14%	2%	19%	2%	9%
인칭대명사	5%	13%	2%	11%	8%
원문구조	3%	11%	9%	4%	7%
제목 번역	4%	-	2%	11%	6%
접속어	4%	1%	6%	10%	5%
수 접미사	11%	1%	2%	3%	4%
스코포스	2%	4%	5%	2%	3%

첫째, 어휘의 의미와 어감 표현은 학생들에게 꾸준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문구조도 학생들의 ST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4개 과제에서 꾸준히 관찰되었던 번역문제였다.

둘째, 문화특정항목과 비유표현, 고유명사, 제목번역 등은 번역전략과 번역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통된 특징으로 본인의 번역에 확신이 없었으며, 교수자 또는 다른 학우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쉽게 알 만한 문화특정항목과 고유명사는 직역하여 음차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지역명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을 음차해도 되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4) 학생들 과제 원문의 영향으로 한 개 과제에서만 나타났던 번역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예: 의성어 의태어).

또 한국어 내 외래어 사용이 잦은 부분도 TT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문제가 되었는데 외래어로 직역하면 될지, 순화 표현을 사용할지 많이 고민된다고 털어놓았다.

셋째,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 차이로 나타나는 번역문제의 경우 복수형 수 접미사 '-들'은 번역문제 인식 후 학생들 스스로 가장 잘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항목이다. 문장부호의 경우 이탤릭체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반면 대시(—)와 콜론(:)은 원문 이해 단계에서부터 크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칭대명사의 경우 번역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학습한 이후 큰 어려움 없이 번역과제를 수행하는 듯 보였으나, 유독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과제 4의 경우 여전히 학생들에게 어려운 번역문제로 작용하였다.

넷째, 접속어의 경우 ST와 TT를 1:1 대응시켜 번역과제를 수행했던 학기 초에는 어려운 번역문제가 아니었으나, 학기 말로 갈수록 학생들이 TT의 결속성을 고려하면서 접속어 번역을 점점 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코포스의 경우 대상 독자 또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전체적인 문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토로하는 학생이 일부 있었으며, 과제 3의 경우 아동문학 텍스트여서 문체 선택이 특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학생들이 번역에 관해 논할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였다. 먼저 학생들과 소통 과정에서 '문제'라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이론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모두 번역문제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챕터를 배울 때마다 해당 내용에 '문제'라는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는 식이다. 스코포스를 배우면 '스코포스의 문제', 명시화를 배우면 '명시화의 문제', 음차를 배우면 '음차의 문제' 이런 식으로 교재의 거의 모든 소제목을 번역문제로 지칭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라고 인식했던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 학생 A

ST: Eventually, in 1812 in the Bohemian spa town of Teplitz (now known as Teplice) the encounter finally happened.
번역문제: 음차의 문제 - Teplice 그 자체를 어떻게 옮길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음차하여 옮긴 후에 괄호로 그 안에 원문을 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써봤습니다.

- 학생 B

ST: Perhaps for all those reasons they didn't click

번역문제: 명시화의 문제 - 나는 'Perhaps for all those reasons they didn't click.' 이 문장이 앞뒤 내용의 역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겉보기엔'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긴 했지만, 독자로 하여금 '공통점이 많았다는데 왜 호흡이 안 맞지?'라는 궁금증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라 판단한 것이다.

학생 A의 경우 지명을 나타내는 문화특정항목을 두고 음차를 할까, 설명을 덧붙일까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음차라는 번역 솔루션의 선택 여부를 번역문제로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생 B는 'perhaps'라는 부사를 접속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어휘의 의미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번역문제 인식은 '명시화의 문제'로 이름 붙였다. 학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위해 메타인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건대, 번역문제는 학생들이 번역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번역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번역전략과 방법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음차 또는 명시화와 같은 번역방법을 번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음차 또는 명시화를 '문제'로 인식해버리면 오히려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번역전략과 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번역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뜨릴 수 있다. 번역문제와 번역전략과 방법 간의 관계를 이해한 학생들은 차츰 번역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메타언어를 오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타언어 사용의 혼란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은 '직역하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역'은 사전의 기본 의미로 1:1 대응시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이런 경우에 '직역'과 반대로 사전의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 맥락에 적절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의역' 또는 '명시화'라고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 수업에서 메타언어의 적절한 사용은 번역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전의 기본 의미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고려하는 과정에 대해 직역과 의역이라는 메타언어로 이름을 붙여버리면, 학생들이 번역과정에서 더 나은 번역을 찾지 못한 채 사전의 의미만 두고 단순하게 사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직역과 의역, 기타 다양한 번역전략과 방법의 이론 학습을 통해 다양한 메타언어를 익힌다면 학생들의 번역에 대한 사고 또한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어휘의 기본 의미로 단순히 옮기는 것을 직역이라고 표현한 경우의 일부 예시다.

- 학생 C

ST: The Creativity Myth
번역문제: 직역하면 창의력 신화/속설/잘못된 믿음 정도로 번역 가능하지만 (생략)

- 학생 D

ST: They were giants of their age eager to meet and appraise the other.
번역문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거장이었으며~"로 가야 하는데 "들"이란 표현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 학생 E

ST: 'This nugget of wisdom'
번역문제: 'This nugget of wisdom'은 앞 문장에서 인용된 문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역하게 되면 '이 지혜 덩어리'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해는 되지만 독자들에게 글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배경지식과 ST라는 원문의 범주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 검색하여 얻은 배경지식을 원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학생 F

ST: Each of us is now electronically connected to the globe, and yet we feel utterly alone. — Dan Brown, Angels & Demons (인용문)
번역문제: 천사와 악마는 댄 브라운의 소설이다. 다만, 나도 처음에 해당 원문을 받았을 때 "Dan Brown, Angels & Demons"의 Angels & Demons가 댄 브라운의 회사인가? 아니면 이 글을 올린 출판사인가? 하는 의아함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소설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보충 설명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나는 판단했다. 특히 해당 소설은 2000년에 나왔고 해당 번역의 독자가 모든 연령층이라면 모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제목 부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괄호를 사용하는 것보단 각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 학생 G

ST: Bohemian spa town of Teplitz
번역문제: 'Bohemian spa town of Teplitz'를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은 잘 모를 것이다. 테플리체의 보헤미안 스파 타운이라고 번역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것이 유럽의 어느 나라의 온천인지 혹은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중후하다. 따라서 테플리체의 보헤미안 스파 타운이라 하지 않고 원문에 없는 세부사항을 기술하여 '체코의 가장 유명한 스파 타운인 테플리체'라 번역하는 확대(amplification)방법을 사용하면 번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학생 F가 독자가 모를 수 있다고 걱정한 부분은 제목 하단에 짧게 표시된 인용문의 출처였으며, 학생 G가 독자의 이해를 걱정했던 부분도 두 주인공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를 간단히 언급했던 부분이다. 두 학생 모두 자신이 검색한 내용을 번역문에 설명하지 않으면 독자가 번역서를 읽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자신이 검색한 내용을 번역문에 추가하여 번역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2. 번역 이론의 가능성

4.2.1.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론

학기 초 수강생들에게 번역 이론 수업에 대해 현재(수강 전)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이클래스 토론방을 열어 질문하였는데, '이론 수업'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하여,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실무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더해, 번역학 이론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음을 드러낸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번역 이론 학습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함을 느꼈고, 교수자는 학기 말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론 수업 수강 전과 후에 번역 이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번 모두 의견을 내주었던 학생들을 모아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학생들 대부분이 이론 학습에 대해 수강 이후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사전에 이론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이론 학습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편견이 깨지는 시점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겠다.

표 3. 번역 이론에 대한 이미지 유형(1): 부정적 선입견

학생	수강 전	수강 후
1	번역 이론 수업은 '무조건 배운 이론은 전부 암기해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론 수업을 수강했을 때 실질적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번역 실습수업을 들었을 때 이론 수업 때 배운 걸 많이 참고하여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번역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웠던 전략들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2	"A 한 텍스트는 B 처럼 번역해라" 라고 제한적인 처방을 내려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실용적이지 않고,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던 번역 이론이었는데 eicc 를 이중전공하며 여러 이론 수업을 들어보니 오히려 가장 실무번역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번역 이론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실무의 기반을 다져주는' 이미지입니다.
3	개인적으로 '이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무' 혹은 '실용'과 대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실무 번역을 다루는 수업보다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학문이더라도 이론을 알아야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 이론 수업에서도 실무번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기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번역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서 흥미로웠다. 번역 이론을 알고 번역하는 것과 모르고 번역하는 것이 번역의 질에 있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번역을 하며 애매하게 알고 있었거나 난항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
4	다른 실습수업들에 비해 딱딱하고 개인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법들과 실제 사용되는 방법들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번역방법을 살펴보고, 번역문제와 그 해결법에 대해 배우는 번역의 기초 수업. 번역 이론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번역 실습에서 많은 차이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5	번역 이론 수업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건 이번 수업이 처음이고, 이전에 다른 통번역 수업을 들었을 때는 번역 이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번역 이론이 쓸데없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번역 이론 수업을 듣고 나니 이론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여러 상황에서, 독자층이 달라질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만 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번역 품질이 향상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번역을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배운 것 같다.
6	나는 막연히 통역보다는 번역에 관심이 있어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부담도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번역 이론 수업 자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한 학기동안 TTP 수업을 듣고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교재를 탐독하며 예상치 못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딱딱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양하고 흥미로운 예시와 함께 배우니 재밌고 이해도 잘 되었다. (생략) 지금 내가 가진 '번역 이론 수업'의 이미지는 '전공 지식을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7	저는 번역을 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번역 실습을 하기 전에 이론을 먼저 배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통번역의 기초를 다루는 수업이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 번역에서는 이론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각도에서 나의 번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업이다.
8	통번역 수업을 수강하며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이론 수업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습수업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번역에 대해 공부하고 번역을 전공하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번역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고, 번역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고민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 있다.

번역 이론 교과목에 대해 수강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1, 2처럼 이론 학습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이론은 암기해야 할 게 많다',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 3, 4, 5와 같이 실무 또는 실용과 대비되는 느낌 때문에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다', '개인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쓸데없이 복잡하다' 등의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학생 개인의 선입견에서 출발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기가 진행되면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번역 이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생 6처럼 이론 수업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기 말에 이론 수업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양적으로 수치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응답자 중 상당수가 이론 수업 수강 후 번역 이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던 부분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Ordóñez and Agost 2021: 165).

학생들의 수강 후 답변을 살펴보면 이론 교과목의 강점으로 꼽았던 내용과 흡사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Ordóñez and Agost 2021: 165), 학생 1과 2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운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학생 3, 4, 5는 직간접적으로 번역문제와 번역 솔루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론 학습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전략적 능력을 쌓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학생 7과 8의 의견은 전공 교과과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교수자에게 생각해볼 여지를 던져주는 내용도 있었다. 전공 수업이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 수업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견이었는데, 혹시 교수자들이 의도치 않게 이론 수업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학부 전공생들이 번역 이론 학습에 대해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이론 교과목의 추가 개설 또는 핵심 교과목 지정 등에 대해 숙고할 여지를 주었던 선행연구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Ordóñez López and Agost 2015: 331)

표 4. 번역 이론에 대한 이미지 유형(2): 이론은 뭘 배우지?

학생	수강 전	수강 후
1	'번역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번역이라는 건 번역하는 사람의 역량 및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독자에 따라 해석이 되는 방향도 달라진다고 생각했기에 형식이 정해진 이론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듣는 전공 수업이었다. 번역에도 이론이 있다는 걸 몰랐던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 돌이켜 봤을 때,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바꾸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수업이다. 번역을 가볍게 본 사람이라면 꼭 해당 번역 이론 수업을 수강하여 번역 뒤

		에 숨겨진 넓은 세상을 보기를 바란다.
2	원서를 읽으며 문법처럼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었고, 처음 수강했던 번역 기초 수업에서도 이론 파트는 비슷하게 배웠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번역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사례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학기 초에 걱정했던 아주 딱딱한 수업은 아니라고 느껴진다.
3	번역 이론에서 저자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약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TP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번역은 무조건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학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론을 알고 있어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번역 이론 수업은 번역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4	1 학년 때는 교수님마다 다르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통번역 수업은 1~2 주 차 수업에서 이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실습을 쭉 하는 구성이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번역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이론보단 실습을 많이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일거라 생각했다. 막상 통역, 번역에 대한 이론은 정의 및 기초적인 몇 가지 방법만 배우면 끝이라고 보며 배울 이론은 크게 없을 거라고 오해하고, 실습과 이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계속 이론을 간과했던 것 같다.	번역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것만큼 과연 번역 '이론'에서도 얻어가는 게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론에 대한 선입견이 ttp 수업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번에 전공 수업을 6 개 들어서 번역 실습 기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ttp 교재 및 ttp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매번 참고하면서 적용해냈던 것 같다. ttp 때 배웠던 내용이 워낙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번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다시 찾아보게 됐던 것 같다. 물론 번역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번역전략을 취할지, 또 어떤 번역방법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잡혔다. 그래서 동기들에게 'ttp 안 들었으면 이 부분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했던 기억도 있다.

다음으로 이론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진 않았으나, 이론 수업 수강 전에 번역 이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학생들이 있었다. 번역에도 이론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경우부터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만 배우면 크게

배울 내용이 있을까 오해했다는 학생, 문법처럼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던 학생 등이 있었다. 유형(2)와 관련하여 통번역 전공생임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써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의 학기 말 답변을 살펴보면 앞에 유형(1)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론 학습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번역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생 1, 2, 3은 번역에 대한 시야를 넓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 4는 체계적인 이론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이론 학습 내용을 다른 전공 실습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이론 교과목의 강점과 정확히 맞닿는 부분이었다(Ordóñez and Agost 2021: 168-169).

표 5. 번역 이론에 대한 이미지 유형(3): 이론 학습의 필요성 인지

학생	수강 전	수강 후
1	1 학년 초기에는 처음 보는 학자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정의한 각종 용어가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외대에서 1 년간 전공수업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기존의 번역가들이 업무를 처리하며 맞닥뜨린 딜레마나 쟁점 등이 녹아있는 이론은 번역이라는 분야의 선구자들이 고민해왔던 흔적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과 생각할 거리를 인지하여 번역 실습 시 시행착오를 단축하고 더 발전된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번역가가 번역 작업을 하며 마주치고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학자들이 정립해놓은 '이론'이라는 체계 하에서 고민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TTP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전공 수업에서도 자주 느꼈던 부분입니다. 타 학우분들의 의견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과 새로운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작년 1 학년 Foundations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을 수강하며 번역 이론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통번역은 실무가 중추를 이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번역 이론이 처음엔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론이 실무에 100%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하며	제게 '번역 이론' 수업이란 3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생각뭉치에 이름을 붙여주는 시간, 둘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셋째는 사고를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생략)

	배웠던 이론이 번역 실무에 적용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번역 이론을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3	처음에 이 수업을 들은 이유는 언어철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 작동이 사회와 사람 간에 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우고 싶었다.	EKT(영한번역), KET(한영번역)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다 보니 TTP 와 생각보다 빨리 친해진 것 같다. 따라서 '번역 이론' 수업은 실습 및 실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나에게 메타적인 생각을 가능케 해준 수업이었다.
4	(생략) 일대일 번역이 아닌, 한국 문화와 정서 그리고 간결함을 목표로 한 번역이 훨씬 더 상황에 적절했다고 드라마를 보면서 간간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왜 번역가들이 그런 번역을 했는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번역 이론' 수업이란 '번역' 이라는 행위의 개념, 범주, 전략을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CAT 수업'이 컴퓨터 번역을 활용한 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한 수업이라면, 번역 이론 수업은 처음부터 포스트에디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번역방식보다 우월한지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이미지로 정리하자면, 법학이라면 물권법 배우기 전에 민법총칙 공부하는, 경제학이라면 미시경제학 배우기 전에 경제학원론을 배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5	번역을 시작하기 막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실무는 이론에 기반해 이를 내 스타일대로 응용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 실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업이 될 것 같다.	단순히 이론 뿐만 아니라 번역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세세한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혼용하고 있었던 단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양한 번역문제와 번역전략을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번역 실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6	이론과 실전 경험의 중요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배워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키울 수 있고, 경험이 있어야 이론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수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이론 수업은 번역의 지식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 이론이란 단순히 얼마나 정확히 한 언어의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인지 배우는 줄 알았다. 작년과 올해 TTP 1.2 를 모두 수강하면서 번역의 의미, 범위, 문제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배우며 번역이란 더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세심한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아는 것이 곧 힘이듯이,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뭐가 더 나은 번역인지 혹은 어떤 걸 번역할 때 봐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번역 이론 수업은 단순히 번역의 결과물을 다듬고 가공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이나 결과물 만들어 내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번역을 돕는 여러 도구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 이론 수업은 "번역" 자체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업인 것 같다. 때론 처방론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기도 하고, 때론 좋은 번역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끊임없이 좋은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번역 이론 학습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했던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 1과 2의 경우처럼 1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번역 이론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통번역 이론이 처음에는 모호하게 느껴졌으나, 학습 경험이 쌓이면서 이론 학습의 가치를 직접 느낀 학생들이 실제 이론 수업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학생 3, 4와 같이 개인의 관심으로 이론을 배우고자 한 경우도 있으며, 학생 5, 6, 7처럼 이론 학습이 번역과정에 필요한 도구 또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학생들도 있었다.

유형(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앞에 다른 유형의 학생들과 달리 처음부터 이론 학습에 거부감이 없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선 두 유형과 유사한 특징으로 체계적인 사고와 사고의 확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학생 7은 더 나아가 좋은 번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선 유형과 다소 차이점은 메타언어, 메타인지 등을 포함하여 이론에서 다루었던 용어를 조금 더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번역 이론 학습 경험이 실제 이론 교과목의 학습 내용 습득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유형 1, 2, 3 모두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번역에 대한 사고 확장, 체계적인 사고, 메타언어 등을 이론 학습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이렇듯 이론 학습이 학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문제는 한두 학기 이론

교과목을 수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전략적 능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학기 말에 '번역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번역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연구자에게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도 있었다.

학부에서는 번역전공생들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전략적 능력을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justification), 즉, 번역가로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Vottonen and Kujamäki 2021: 309). 다시 말해, 2학년 번역 이론과 실제 수업 이후에도 다른 수업에서 이론을 계속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데, 수업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과연 2학년에 배우고 3-4학년 수업에서 이론을 다루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이론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번역 선택을 설명할 때 번역 이론을 얼마나 원용하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직감(gut feeling)에 의존했다고 답한 경우가 30% 내외였고, 번역 이론에 기반해 메타언어를 사용한 경우도 드물었다(Vottonen and Kujamäki 2021: 313-315). 번역 이론 및 실제 수업, 또는 그 이후의 수업에서 번역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4.2.2.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이론과 필요한 이론

교재를 통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고, 46명의 수강생이 답한 내용의 평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번역 이론 학습 내용에 대한 중요도·필요도 평균

학습 내용	중요도	필요도
번역전략	4.33	4.37
번역방법	4.48	4.48
번역의 어려움	4.54	4.59
언어 차이에 따른 번역문제	4.61	4.78
번역학 이론	4.11	4.11
텍스트 유형과 특징	4.13	4.04

도구 활용	3.85	3.87
교정교열	3.91	3.80
번역의 정의	4.24	3.91

표 6의 중요도·필요도 평균값을 토대로 분산형 차트를 작성하였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나누었다. 가로축은 중요도, 세로축은 필요도를 나타내며, 사분면의 구분선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학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중요도·필요도를 분석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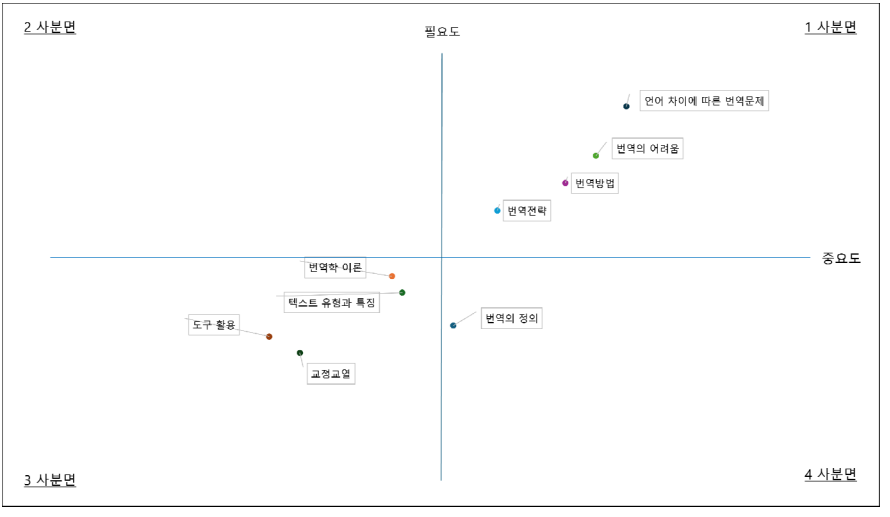

그림 2. 번역 이론 학습 내용에 대한 중요도-필요도 분석

학생들은 번역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번역전략과 번역방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번역문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번역 그 자체로 어려움을 야기하는 번역문제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차이에서 기인한 번역문제로 분류하였는데, 두 영역 중요도와 필요도 둘 다 높은 1 사분면에 위치하였다. 스코포스 이론을 포함한 번역학 이론과 영상번역, 법률 번역 등의 텍스트 유형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업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계번역을 포함한 도구 활용과 관련된 내용과 교정교열 관련 내용도 3 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 초반에 번역의 정의와 개념 부분은 중요도는 높지만, 학습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나타났다. 학생들은 해당 부분을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간략히 다룰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과 소통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먼저 1 사분면을 살펴보면 이론 수업은 학생들이 번역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문장부호와 수 접미사 등의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번역문제 뿐만 아니라 말장난과 문화특정항목 등과 같이 등가 표현의 부재로 번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번역문제도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학습의 필요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와 필요도를 나타냈던 항목은 번역방법과 번역전략이었다. 교재에서 번역방법 관련 소챕터는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직역과 의역, 명시화, 생략, 문장 분리와 접합 등 다양한 챕터에서 번역전략과 번역방법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각자 번역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의 3 사분면은 중요도와 필요도 둘 다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포스 이론을 포함하여 번역 정, 파라텍스트 등의 번역학 이론과 텍스트 유형이 3 사분면에 나타난 건 다소 놀라운 결과였다. 3 사분면에 위치한 다른 유형 중에서 도구 활용의 중요도와 필요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관련 챕터는 학생들의 댓글 관심도는 무척 높게 나타났지만, 이론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학생 코멘트를 분석한 결과 CAT 툴 관련 챕터의 관심도가 다소 낮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흥미도 높은 동시에 번역을 전공한다고 하면 포스트에디팅을 배우는 줄 안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었다. 3 사분면의 마지막 항목인 교정교열의 경우, 학생 코멘트를 살펴보면 호불호가 나누어졌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관심 있는 학생 중에는 별도로 배우길 희망한 학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4 사분면에 위치한 번역의 정의와 개념의 확장 부분은 중요도는 높지만 학습 필요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재의 전체 43개 챕터 중에서 학생들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던 부분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던 항목이었으나, 수업 시간에 살펴본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필

요도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번역의 정의: 한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번역 개념이 확장되어 인상깊었습니다. (생략) 저도 번역이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전환 정도로 여겼었는데, 광고를 변형하거나 만화를 그리는 것들이 모두 번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5. 논의 및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전략적 능력이 왜 중요한지(2.1 참조)를 살펴보았고,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을 향상하려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키워야(2.2 참조) 하는데 이때 번역 이론(2.3 참조)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학부 번역전공생들이 2학년 전공 번역 이론 및 실제 수업에서 번역문제를 잘 파악하는지,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4.1 참조). 아울러 번역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보았다(4.2 참조).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찾지는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학부 번역전공 저학년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는 현재의 사고 과정은 어떤지를 알아보고, 이론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없을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이론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론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와 교육 활동을 구상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우선 어휘의미, 문화특정항목, 고유명사 등의 순으로 번역문제를 꼽았다. 언어능력이 숙달된 상태로 입학하는 석사 과정과 달리 통번역 전공생이지만 아직 외국어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부 번역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통번역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이다(이상빈 2013: 97-98). 수식어구를 포함하여 원문구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유사한 이유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직은 작은 단위에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둘째, 학생들이 번역에 관해 논할 때 '스코포스의 문제' 등 '문제'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붙여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메타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했다. 배경지식 검색을 통해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기도 했다.

셋째, 번역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은 학기 초에 부정적이었다가 전반적으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번역 이론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가 늘었다.

넷째, 학생들은 번역 이론 중에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번역전략과 번역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림 3에서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았던 1 사분면 항목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실무에 빠르게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르도네스와 아고스트(Ordóñez and Agost 2021: 171)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론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어 한다. 이때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학생들이 스코포스 이론 등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중요도와 필요도 둘 다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그림 3 참조). 스코포스 이론의 경우 번역 이론 중에서 학부생들에게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 밖의 결과이다. 학생들의 댓글을 토대로 추론해 보건대 스코포스 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은 점, 다른 수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림 3의 1 사분면 항목 대비 큰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번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도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다음은 스코포스 이론 챕터에서 받았던 학생 코멘트의 일부이다.

- 스코포스: 지난 학기에 번역브리프를 작성하여 번역과제를 제출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과정이 어렵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하면 할수록 스스로 번역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다. 스코포스 이론은 처음 접했지만, 번역 브리프를 작성하며 했던 고민을 떠올리며 읽다 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스코포스: (생략) 그래서 뭔가 책에서도 '어디에 충실하느냐'는 쉽게 규정할 수 없거나 정답은 없다는 식의 설명은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번역에서는 직역이든 의역이든 더 적절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합할지 궁금하다.

그림 2의 중요도-필요도 분석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1 사분면의 항목들은 언어능력과 번역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학부생들의 바람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번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론 내용에 해당한다. 반면 3 사분면의 항목들은 학생들이 번역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는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인 동시에 수업 시간에 높은 흥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중요도와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전략적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인지, 또는 학습이 어려워 교수자의 개입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당장 번역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론만 중요도와 필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번역의 이론적 토대를 교육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장기 목표와 대비되는 지점으로(Ordóñez and Agost 2021: 174) 번역 이론 교육 측면에서 향후 중요도와 필요도 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번역 이론 교육에서 개선할 부분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전략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사고가 작은 단위에 머물러 있었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이론 교과목을 통해 학습한 여러 메타언어를 사용하려고는 했지만 잘못 이해해서 오남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론 중 충분히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번역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교육할 때는 학생들이 작은 단위를 넘어 큰 그림을 조망하고, 메타언어의 개념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이론도 못지않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단일 학기 단일 수강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고, 번역 전공 저학년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번역일지에 담긴 학생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학생 번역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여러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는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적용하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이론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특히 학부 번역 교육에서 이론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고민이 여전한 가운데 이론 과목 수강생들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살펴본 후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부분에서 번역 교육에서의 의의 및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와 교육 활동의 건실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발견을 제시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맥락화하는 과정은 부족하였다. 향후 특정 번역 이론이 전략적 능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거나 학생들이 선호한 이론과 번역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 같은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략적 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연구 신뢰성을 강화하거나, 대조군을 포함한 비교 연구 또는 종단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재고하여 방법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할 때 이론이 사고의 큰 틀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그만큼 학생들이 여러 이론의 개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실무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2024학년도 1학기 <번역 이론과 실제>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토대로, 통번역 전공 학과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번역을 평가하고 번역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번역전공생들을 학년별로 별도 모집한 후 동일한 번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크린리코딩, 트랜스로그II 등의 번역과정 관찰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며, 학생들은 번역을 완료한 후에 관련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할 것이다. 또한, 번역 원문 중에서 특히나 전략적 능력이 크게 발휘될 부분을 사전에 지정하여 해당 부분을 번역할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부 번역전공생들은 학년별로 어떤 전략적 능력을 갖췄으며,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2(4): 7-32.

남원준. (2010). 「학부에서의 번역 이론 교육 -'영어 번역 이론 및 실제' 교과 운영의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8(1): 29-50.

남원준. (2019). 「'고전'번역이론의 살아 숨 쉬는 가치를 찾아서: 환경의 변화에도 통번역교육에 있어 잊지 말아야할 것들」. 『번역학연구』 20(4): 57-81.

신지선. (2020). 「학습자 중심의 번역 이론 교육」. 『인문사회 21』 11(5): 605-616.

원종화. (2013). 「번역 수업과 번역 이론의 연계를 위한 실행 연구 -통번역대학원 번역입문 수업을 대상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291-314.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1-113.

이상빈. (2017/2023).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이상원. (2013). 「통번역대학원의 이론 강좌 고찰 신설 강좌'통번역 주제 강독'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1): 159-176.

이유진. (2022, 1월). 「A Study on the Learning Effect of Interpretation Theory Education - Focused on Chinese Interpretation courses」, The 21st ITRI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유진. (2023). 「통역이론 교육의 학습효과에 관한 소고 - 학부 중국어통역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지식융합연구』 6(1): 87-112.

이은숙·이은정. (2010). 「학부번역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인식도 조사」. 『언어학 연구』 17: 215-234.

이흠·가지혜·서혁. (2024).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메타인지 읽기 전략 사용 양상 연구 — '인식'과 '사용'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9(2): 139-173.

정혜연. (2008). 「통번역 분야 변화에 따른 학부통번역 교육의 새 방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459-483.

최은경·윤미선·홍승연. (2023). 「학부 번역교육에서 기계번역 메타언어 학습 활동에 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5(1): 155-184.

Agost, R., and Pilar Ordóñez L. (2015). Translation theory: Myths, prejudices and realities, *Babel* 61(3): 361-380.

Antonova, A.M. (2023). Training the augmented interpreter today. *Lomonosov Linguistic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Journal* 4(26): 25-37.

Block, C. (2004). *Teaching Comprehension: The Comprehension Process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Chang, L-Y.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the Formation of Chinese Students' Translation Competence: with a particular focus on metacognitive reflection and web search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Fernández, F. and Zabalbeascoa, P. (2012). Developing trainee translators' strategic subcompetence through metacognitive questionnaires. *Meta* 57(3): 740–762.

Flavell, J.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era of cognitive-development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 906-911.

Göpferich, S. (2009).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its acquisition: the longitudinal study TransComp. In Göpferich, S., Jakobsen, A. L. and Mees, I. M. (eds) Behind the Mind: Methods, Models and Results in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Copenhagen Studies in Language* 37: 11−37.

Göpferich, S. (2013). Translation competence: Explaining development and stagnation from a dynamic systems perspective. *Target* 25(1): 61-76.

Göpferich, S and Jääskeläinen R. (2009). Process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need to go?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0(2): 169−191.

Hurtado Albir, A. (2017). *Researching translation competence by PACTE group.* Amsterdam/New York: John Benjamins.

Lafeber, A. (2022).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of translators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Svoboda, Tomáš, Łucja Biel, and Vilelmini Sosoni (eds.)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30-48.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Li, L. (2017). Training undergraduate translators: a consciousness-raising approach.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4): 245−258.

Mellinger, C. D. (2019). Metacognition and self-assessment in specialized translation education: task awareness and metacognitive bundling. *Perspectives* 27(4): 604−621.

Ning, W. and Hongtao, W. (2023). Challenges and its future prospects. *Babel* 69(4) Special issue on Literary Transl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O'Brien, S. (2024). Human-Centered augmented translation: against antagonistic dualisms. In Tieber, Michael, and Stefan Baumgarten (eds.) Mean machines? Sociotechnical (r)evolution and human labour in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dustry. *Perspectives*. 32 (3): 391-406.

Ordóñez-López, P., and Agost R. (2015). An empirical study of students' views on theoretical subjects: The role of theory in translation degrees at Spanish universities. In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Methods in 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Cui, Ying and Wei Zhao, 324−345. Hershey, PA: IGI Global.

Ordóñez López, P., and Agost R. (2021). Future translators' views on translation theory: a qualitative approach.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6(2): 158−176.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Alves, F (ed.) 2003. *Triangulating Translation*. Amsterdam/New York: John Benjamins, 43−66.

PACTE. (2009).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acceptability and decision-mak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0(2): 207−230.

PACTE. (2014). First results of PACTE group's experimental research on translation competence acquisition: the acquisition of declarative knowledge of translation. *MonTI (Monografía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Special Issue −Minding Translation* 85-115.

Prieto Ramos, F. (2024). Revisiting translator competen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ase of legal and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8(2): 148−173.

Pym, A. and Torres-Simón, E. (2021). Is automation changing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021(270): 39-57.

Vottonen, E., and Kujamäki, M. (2021). On what grounds? Justifications of student translators for their translation solution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5(3): 306–325.

This paper was received on 3 November 2024; revised on 2 December 2024; and accepted on 4 December 2024.

Authors' email addresses

haengbok20@naver.com

wjnam@hufs.ac.kr

About the authors

Sukyoung An (first author) i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Won Jun Nam (corresponding author)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he lead translator of the fifth edition of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